

청소년기 가족문제*

이 영 숙**
고 성 혜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I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신체적 심리적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은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때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의 전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가족 구조의 해체와 기능 약화를 들어, 보편적으로 이혼, 편부모 가족, 빈곤 가족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의 자녀가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

조적으로 취약한 가족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심리적, 경제적 적응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특성이 청소년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이에 대한 사실적 진위에 상관없이 사회적 편견으로 확산돼 해당 청소년에 대해 갖가지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일탈가능성을 높인다(장경섭, 1991)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가족 기능의 약화 및 가족의 방향 상실이 빚어 내는 청소년의 불만과 고충이 보다 보편적이고, 적응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가족이탈 및 사회의 유해 환경에의 노출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감수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격동하기 쉬운 청소년기의 특성상,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유형의 비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가족 분위기가 강압적이거나 부모간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고, 부모가 입지주도형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YMCA, 1991),

* 이 논문은 1994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요약한 것임.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결과는 보고서 참고 바람.

** 공동연구자는 이영숙(연구위원), 고성혜(선임연구원)임.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형제간의 경쟁이 지나치며,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등(박성수, 1990) 가족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증가된다.

청소년의 비행 및 정신건강 등을 다룬 연구(석말숙, 1989 : 윤성림, 1990 : 원호택, 1991 : 박효원, 1993 : 한유진, 1993)에서도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가족 및 부모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모간의 의견 불일치가 잦고, 부모가 지나치게 바쁜 경우, 자녀의 성장 욕구와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적대적이고 무관심한 방식으로 키우는 등 자녀지도 방법이 부적절할 때, 가족원간의 경계가 극단적으로 얽혀 있거나 유리되어 있는 등 가족의 상호작용 방식과 정서적 분위기일 때 청소년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eavers(1977, 1983)의 연구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원간의 경계가 밀착된 가족체계와 청소년의 부적응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며, 결속력이 약한 원심성 가족내에서는 정신분열증, 반사회적 성격, 비행 등 역기능적 행동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다룬 연구(김정화, 1988 : 김형태, 1989 : 신은혜, 1984 :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1982 : 최상숙, 1993 : Mussen, 1979) 결과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가계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포기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엄격과 허용의 극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적개심과 거부, 신체적 체벌을 하는 경우에 자녀의 문제 행동 발생율이 높다. 또한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은 부모간의 불화가 잦고, 가족성원간에 심리적 거리가 멀어 가족의 응집력이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 규명 작업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족원간의 갈등, 가족원간의 유리된 경계, 적대적이면서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부적응의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주어진 사회 여건 속에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내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건전한 의식을 갖고 생활해가는데 건 강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평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감, 신체적 성숙도 등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등의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내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되,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내 문제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등 앞서의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가족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고자 한다.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청소년의 건 강한 적응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시키고 가족이탈 성향을 부추기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룸으로써 문제가족화 되는 것을 막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 지도 및 부모 교육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연구의 궁극적 목표가 청소년의 적응 지원체제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 불평 등에 대한 태도 및 가족이탈 성향과의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응답자의 성별, 교급별, 지역별, 가족 수, 어머니의 연령, 취업,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한가?

2-1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2-2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2-3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문제와 사회불평 등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표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행동과 전반적인 가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지역에 속한 중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고등학생 모집단의

성별, 교급별, 지역규모별 지역권역별 비율을 계산하여 할당 표집을 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7개 학급(남 24학급, 여 23학급)을 선정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10학급, 직할시 12학급, 시 지역 14학급, 군 지역 11학급이다.

3. 조사도구의 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조사도구는 총 130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에는 가족체계의 특성과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다. 이외에 가족이탈 성향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사회불평등과 자아상에 관한 문항,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다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모집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설문 조사는 1994년 6월 11일부터 13일 까지 52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수정했고, 변별력이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130문항의 설문지에 대한 본조사는 1994년 6월 25일부터 7월 21일 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진과 임시 연구원 1인이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질문지를 배포한 후,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질문지를 회수했다. 배포된 질문지는 총 2392부였는데, 2334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하여 신뢰할 수 없는 69부를 제외하고 226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5. 자료분석방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 및 기질성향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 검정, 일원,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일반적 경향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문제의 일반적 경향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거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20.6%, 부모가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며 싸우는 경우는 18.0%, 부모간의 양육 방침이 서로 달라 혼란스럽다는 경우는 10.5%,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경우는 10.9%, 학비나 생활비 때문에 부모님이 돈 걱정을 하신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25.5%로 나타나,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가족간의 불화 등 건강하지 않은 가족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었다.

다수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대화 결핍들은 대화의 절대시간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학생은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안하기 때문이라든가,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거나,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고 하거나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 부모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의견은 항상 잘못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 분포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적어도 3명은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고, 모든 일에 완벽주의이며, 체면을 매우 중시하며, 결점하면 신경질을 낸다고 지적함으로써, 적지 않은 학생이 감정적이고 형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의 부정적 모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심리상태나 사고방식에 대해 모르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잉 기대를 한다는 지각한 청소년은 10명 중 5~6명 꼴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배려나 이해는 받지 못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기대 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3~4명의 청소년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스스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부과되는 규칙은 많은데 반해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은 많지 않다고 보고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솔선수범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기 가족문제의 하위영역, 즉,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모의 문제행동간의 상관분석 결과, 가족체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의 문제행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문제의 환경이 증첩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1)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가족체계의 특성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급별, 지역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 유무, 아버지의 직업,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가족체계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실업계 고등학생은 가족분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도 적고, 가족이 더 혼란스러우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간의 불화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경제적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가족체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년들이 가족 체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반면, 직할시나 군 지역 거주 청소년은 가족분양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이 더 혼란스러우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청소년과 부모 세대간의 학력 차이나 생활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가족간의 공영역이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청소년의 가출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수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 수가 6인 이상이거나 3인 이하인 경우 가족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 가족분양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 가족과 다수 가족의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고, 가정경제상의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는 편모나 편부 가족, 한자녀인 가족이 포함되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상의 불만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 가족의 경우는 자녀 수가 많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심리적, 경제적 배려가 적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나 가정경제 차원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청소년은 가족분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은 적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정경제상의 불만도 크며,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고 지각했다. 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차이로 인해 가족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과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가 가족체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다. 취업모의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꼈고,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간의 불화가 많고, 가족내 규칙이나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자칫

어머니의 취업이 가족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취업모의 직종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가 전업 주부일 때 가족체계의 부정적특성 점수가 51.18점인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49.37점, 사무직인 경우 49.96점으로 오히려 전업 주부보다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집단은 어머니의 직업이 생산노무직이거나 농업 종사자인 경우로, 이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가족원간에 사이가 나쁘고, 폭력적이며,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고,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지각했다. 어머니의 직업 지위가 낮고 신체적 피로도가 심하며, 대개 경제적 이유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불만이 자녀에게도 투사되어 자녀는 가족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머니의 취업 자체보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가 가족 분위기등 가족체계를 설명하는데 더 의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고,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도 적게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나 생산노무직인 경우에는 가족원간의 사이가 나쁘고, 폭력적이며,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많고, 경제 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도 앞서의 결과와 유사하여,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체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별 분석 결과 역시, 저소득층의 중고등

학생이 가족체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간의 불화가 많고,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크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도 많고, 가족이 혼란스럽다고 지각했다.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서로 상관이 높아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특성과 각각의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의 독립적인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변수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고, 하위직에 종사하거나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인 경우, 가족의 물질적 환경도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부모의 대인관계 기술등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크고, 현실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성별, 가족수, 어머니의 연령, 취업, 아버지의 직업별, 교육수준별,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급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급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은 가족끼리 서로 만날 절대 시간의 부족하고, 부모의 대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대화하기가 귀찮거나 틀에 박힌 결론이 나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하기 싫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모의 태도 중 전지기 힘든 것은 자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시만 내리려 한다거나 부모가 책임지지 않고, 남의 탓을 하려 할 때, 욕설을 퍼부를 때, 말꼬투리를 잡을 때,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낼 때 등으로 부모의 감정적이고 방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중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적할시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자녀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가장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부모 관련 변수나 가족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듯 싶다. 그것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은 교육과 무관하게, 그들이 속한 계층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대화 기술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의 문제행동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부모의 문제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치명적이므로, 문제행동 하위영역간 상관관계과를 알아 보았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고등 학생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거부적이면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모간의 자녀양육 방침이 혼란스럽고, 부모가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으며, 술과 도박 등에 탐닉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은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우며, 불안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부모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부모가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고,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나 편애를 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등의 이기적 태도를 더 보인다고 지각했다. 이러한 요인은 아직까지도 딸보다는 아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편애하며, 특히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더 체면치레를 하는 모습이 남학생의 눈에 비추어졌을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술이나 도박 등에 탐닉하는 행동을 보이고, 자식에게 강요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전혀 모범적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의 전전한 생활 태도를 함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목을 요한다.

교급별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는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중학생의 부

모는 문제행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는 유독 인문계 고등학생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 대학 입시의 압력을 빠르게,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부모가 자녀 심리나 발달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지각했으며, 일관성없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며, 부모의 탐닉적 행동으로 인해 자녀에게 모범적 행동을 하지 못하며, 자녀에 대해 거부적, 익애적 태도를 보이며, 편애를 하고, 부정적 가치를 자녀에게 강조한다고 보고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은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로, 부모의 문제행동은 부모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가 유발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이 선행되었든 간에, 부모의 부정적 행동은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고, 이상향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반감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울시 거주 청소년의 부모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긍정적이고, 군 거주 청소년의 부모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부모가 술이나 도박등에 탐닉해 있고, 자녀에 대해 거부적, 익애적, 과잉기대, 강요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했고, 특정 자녀를 편애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듯 군 지역 청소년 부모는 자기 세대의 한을 자녀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과잉기대도 하고 지나치게 허용적이기도 하며, 자녀의 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세대를 이해하기에는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가 건강하지 않고 혼란과 반발심을 키워 가족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가

능성이 많다.

가족 수에 따른 부모의 문제행동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4인 가족의 청소년은 부모의 문제행동을 가장 적게 보고했고, 다수 가족의 청소년은 부모의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에서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3인 이하와 6인 이상 가족의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양육상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며,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탐닉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다수 가족의 경우 가족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자녀양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족 수가 적은 경우는 자녀 수가 적어 오히려 부모의 간섭이나 강요적인 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관심한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 가족에 한 자녀 가족인 경우도 포함되지만, 편부모 가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에,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일관된 태도로 자녀양육에 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많은 어머니를 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지각하였다. 부모의 문제행동의 하위 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중고등학생은 어머니가 젊을수록 자녀를 간섭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지각하였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가치를 강조하고 편견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강요하는 태도로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고 지각했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의 문제행동 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자녀는 부모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했다. 부모의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취업모 자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더 거부적이며, 더 무관심하고, 탐닉적나 행동에 더 빠져 있는 반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덜 간섭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절대량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구체적 행동 교류가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피관하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된다. 어머니의 직종에 따른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 노무직 또는 농업 종사자인 경우, 청소년의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또는 전문 관리직인 경우는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하위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아버지 직업이 생산노무직이나 농업 종사자인 경우, 청소년은 부모가 무관심하고 일관성없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지각하였다. 아버지 직업이 농업이나 판매 서비스직인 경우, 청소년은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직업상 사교적으로 술마실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의 성격상 다른 여가나 문화 생활을 즐길 만한 기회가 부족하고 도시에 대한 박탈감등을 해소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나친 형식주의에 매달리는 부모의 문제행동 영역을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 간섭을 많이 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과잉기대를 하고,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며, 일관성 없이 양육하고,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됨으로써, 이들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한 역할 및 소양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가계소득에 따른 부모의 문제행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역시, 저소득층의 청소년이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술이나 도박 등에 빠져 있어 술선수범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자녀에게 주는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은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서로 상관이 높아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문제행동과 각각의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삼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변수,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라는 변수가 사회계층적 요소 외에 어머니의 교육수준과의 상관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결국 부모의 구체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의 대인

관계가 기술 및 양육 가치등 개인적 자질함양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받은 교육의 영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후속 분석 작업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의 삼원 변량 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주 효과만이 유의하게 나옴으로써 양육자의 교육수준이 중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3.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사회심리학적 변수와의 관계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족내 문제의 실태 파악에 일차적 관심이 있으나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문제행동 등 가족문제는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이탈을 부추기는 문제행동으로 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다루었다.

1) 가족문제와 청소년의 자아상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 자아상은 밀접한 상관을 보여, 가족체계의 부정적 측면이 많을수록 자아상이 낮게 나타났다($r = -.40^{***}$). 특히 가정경제 상태가 열악하여 불만이 많고($r = -.32^{**}$)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적을수록($r = -.42^{***}$) 청소년의 자아상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상은 부정적 상관을 보였고($r = -.18^{**}$), 자아상과 부모의 문제행동과도 부정적 상관을 보여($r = -.28^{***}$),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상은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상과 부정 상관을 보이는 부모의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와 거부적 태도로 나타나,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위해 지양해야 할 양육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약한 정도이긴 해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아상은 부정적 상관을 보여, Satir의 견해대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자기가치감이 낮게 되며 정신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바를 고려할 때 주목을 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 부모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요 가족문제라는 것을 시사받는다.

2) 가족문제와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상관분석 결과 낮은 정적 상관($r = .23^{**}$)을 보였다. 가족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정경제 사정이 좋지 않거나($r = .20^{**}$) 가족내 규칙이 없이 혼란스러운 경우에 사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0^{**}$).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매우 미약한 정적 상관($r = .18^{**}$)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문제행동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의 상관 분석에 의하면, 미약한 정적 상관($r = .18^{**}$)을 보이며, 하위영역에 대해서도 미약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의 골이 깊어 기존의 사회 제

도에 대해 회의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시기이다. 앞서의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문제와 상관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부분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가족문제와 가족이탈 성향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과 가족문제와의 상관 분석에 의하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과는 높은 정적 상관($r=.51^{***}$)을 보였다. 가족체계의 항위영역과 가족이탈 성향과의 상관을 보면,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고($r=.32^{***}$), 가족간의 상이가 좋지 않고 폭력적일 때($r=.39^{***}$),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약하고($r=.45^{***}$) 가족내 규칙이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울 때($r=.49^{***}$)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높았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역기능적 의사소통($r=.37^{***}$) 및 장애요인($r=.45^{***}$)과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대화 기술 부족 역시 청소년의 가족 이탈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과 부모의 문제행동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r=.45^{***}$)을 보였다. 특히, 부모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r=.28^{***}$) 권위를 내세우며, 강요적이며($r=.30^{***}$),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r=.37^{***}$),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r=.34^{***}$), 일관성없고 모순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r=.38^{***}$),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가 많이질 때,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이 증가한다는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문제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4. 가족이탈 성향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체계의 특성,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자아상,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별 증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이며, 두번째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세번째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지각, 네번째는 자아상, 다섯번째는 부모의 문제행동 빈도, 여섯번째는 가계소득이다. 이 여섯 변수는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의 36.1%를 설명하고 있다.

즉 가족간 정서적 유대감도 적고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가족간 불화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사회평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상이 부정적일수록, 부모가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기 가족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청소년기에 대한 당사자 및 부모의 이해가 요구된다.

〈표 1〉 가족이탈 성향에 대한 관련 변수의 독립적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R ²
가족이탈성향	가족체계의 특성	.30	36.1
	역기능적 의사소통	.23	
	사회불평등에 대한 태도	.10	
	자아상	-.10	
	부모의 문제행동	.10	
	가계소득	.08	

I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일차적 지원 체계로서 가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전국의 중고등학생 226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전반적 실태를 가족의 분위기, 의사소통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전국의 47개 학급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대화 결핍으로 대화 시간의 절대 부족을 들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학생은 부모의 예기치 않은 반응에 대한 불안, 부모의 감정적 대응과 틀에 박힌 반응 때문에 대화를 주저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 대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대화기술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0~20%의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가족에 대해 불만족하며, 가족의 폭력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 적응의 지원체계로서의 가족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소년에게 더 많이 해당된다.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이 청소년의 가족이탈 성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적어도 10명 중 3명의 청소년은 부모가 체면, 형식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배려나 이해는 받지 못하면서 부모로부터의 기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용하는 규칙은 엄하고 많으나, 부모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거의 없으며, 언행 불일치 등 모순적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더 많이 나타나, 이들 청소년과 부모를 위해 청소년기 가족스트레스 등을 다루는 전반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초래하는 가족문제는 구조적, 만성적 문제이므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국가적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기 가족문제의 하위영역, 즉, 가족체계의 부정적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부모의 문제행동간에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 가족체계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부모의 문제행동도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간에도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부모는 체면과 형식

에 매달리고, 청소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거부적, 권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문제의 환경이 중첩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가족에의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가족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가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 매

스컴등에 의해 문제화되기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향이나,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함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해결이 어렵고, 더 심각한 문제로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나 국가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화. 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 민병근·이길홍·김현수, 1979. 「한국 청소년 학생의 자살 충동 및 자살기도율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II, 2, 35-42.
-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효원. 1993.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석말숙. 1989.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 비교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신은혜. 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 장애에 관한 상관관계」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성립. 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의 스킴등에 의해 문제화되기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경향이나,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함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해결이 어렵고, 더 심각한 문제로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나 국가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된다.
-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기 가족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경섭. 1992. 「가족문제」 사회문화연구소편, 사회문제. 189-225.
- 최상숙. 1993.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관동대 석사학위 논문.
- 한유진. 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홍재현. 1993.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성향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YMCA. 1991. 「청소년 가을에 관한 설문조사」 청소년연구조사 활동보고서.
- Beavers, W.R. 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New York : Brunner/Mazel.
- Beavers, W.R. and Voeller, H.N. 1983. "Family Model's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Beavers System." *Family Process* 22, 85-98.
- Mussen, P.H. 1979.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 Prentice-Hall.